깎아지른 절벽 위 세워진 하늘 맞닿은 절집

드라마 촬영지 2 - KBS드라마 추노의 촬영지 전남 구례 사성암


전남 구례 사성암의 진면목은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 바위 위 절마당에 섰을때 드러난다. 사진은 마애약사여래불이 모셔진 약사전 전경.

KBS드라마 추노 촬영지…절벽바위에 기댄 사성암

사성암 가는 길은 제법 가파르다. 차로도 서로 교차가 안될 만큼 비좁다.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 '백제 천년고찰 사성암' 이란 표시가 없다면 초행자는 그냥 지날 칠 수도 있다. 지리산 줄기와 닿은 오산(鰲山) 봉우리에 있기에 숲에 가려져 아래에서는 사성암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다. 거의 포장이 돼 있지만 중간 중간 비포장 길을 올라가야 절에 당도한다. 절에 관련된 특별한 목적이 아니면 차를 마을 입구부터 통제하기에 걷는 것이 싫다면 마을버스로 오르는 것이 가장 편하다. 20분 정도 소요된다.

힘들게 올라갔지만 절 마당에서 올려다 보는 대웅전의 카리스마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작은 암자지만 멋스러움은 여느 사찰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힘들었지만 오길 잘 했다는 판단이 들 정도로 풍광이 빼어나다. 이 절은 백제 성왕 22년(544년) 연기조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원래 오산암이던 절 이름도 4명의 고승, 즉 연기조사, 원효대사, 도선국사, 진각국사가 참선 수도한 곳이어서 사성암(四聖庵)으로 사명이 바뀌었다. 이 절이 유명해 진 이유는 풍광뿐이 아니다. KBS서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추노가 촬영된 곳이기도 하다. 이대길(장혁 分)이 죽은줄로 오인한 김혜원(이다해 分)이 머리카락을 주지 스님에게 건네며 제사 지내줄 것을 부탁하는 장면과, 석양이 지는 장면, 송태하(오지호 分)가 김혜원과 함께 약사전 돌담을 내려오는 신 등 다양한 장면을 이곳에서 찍었다.

축대 위에 얹혀진 탑 형상의 약사전

사성암은 약사여래도량이다. 그래서 약사전이 있다. 약사전을 보면 '어떻게 저런 곳에 법당을 지을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높은 기둥과 축대 위에 전각을 세운 약사전은 절벽에 걸려 있는 형상이다. 이 절집은 3분의 1을 바위에 걸치고, 나머지 3분 2는 바위에 세워진 기둥을 짚고 서 있다. 얼핏 보면 전각이 절벽을 뚫고 나온 듯하다. 그래서 20여m 높이의 기둥 아래서 올려다보면 수직절벽 위에 건물이 매달려 있다는 아찔한 느낌이 든다. 눈을 돌려 왼편을 보면 커다란 반석위에 얹힌 듯 지장전이 있고 그 사이에 갈라진 바위를 초석으로 한 선방이 하나 걸쳐져 있다. 각 전각은 마치 바위에 박혀 있는 착각이 들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전체 암자가 오산의 기암절벽과 하나가 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직접 나선형 돌계단을 따라 약사전에 올랐다. 돌계단길 돌난간은 기와로 치장돼 있다. 난간 위엔 앙증맞은 돌탑들이 군데군데 쌓여 있다. 약사전을 올랐던 많은 사람들이 발원의 기도를 담아 쌓은 듯 하나 하나에 정성이 깃들어 있다. 그 한 쪽을 곱게 감싼 덩쿨식물엔 붉은 가을이 내려앉고 있다.

아래서 보는 절집 꾸밈새도 범상치 않지만, 사성암의 진면목은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 바위 위 절 마당에 섰을 때 드러난다.

마당이라기엔 너무 좁은, 절집 앞 두 평 남짓한 공간. 발아래를 내려다보니 감탄사가 절로 터져 나온다. 산과 절집이 빚어낸 경치가 이같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치유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다.

가까이는 유유히 흘러가는 섬진강과 드넓은 구례평야가, 멀리는 장엄한 지리산 능선이 한눈에 들어온다. 날씨 좋은 날이면 화엄사도 볼 수 있다고 한다.

약사전 안은 절벽에 그려진 부처가 불상과 불화를 대신하고 있다. 마애불이 자연 불상이 된 셈이다. 정확한 이름은 마애약사여래불이다. 약 25m 기암절벽에 음각돼 있다. 이는 원효가 선정에 들어 손톱으로 그린 부처상으로 왼손에 애민중생을 위한 약사발이 들려져 있다.

연기 · 원효 · 도선 · 진각 등 고승 수도처
소원나무, 귀목나무…관광객 발길 잡아

바위 하나마다가 바로 부처님 법의

약사전이 그렇듯 왼편 지장전 가는 길도 돌계단을 올라야 한다. 오르다보면 중턱 왼편에 특이한 나무가 눈에 들어온다. 수령 800년이 된 귀목나무다. 나이는 많지만 여전히 푸른 잎사귀를 자랑하며 뙤약볕인데도 그늘을 만들어 준다.

좀 더 올라가면 지장전 가기 전 부채꼴의 편평한 바위가 눈에 띈다. 소원바위라고 써 있다. 사람들의 발 길이 약사전 다음으로 많이 머무르는 곳이다. 그 옛날 하동에 뗏목을 팔러 간 남편을 기다리다 숨진 아내와 아내 잃은 슬픔에 숨을 거둔 남편의 애절한 전설이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인지 바위엔 저마다 한 가지 소원을 간직한 채 붙어 있는 동전들이 널려 있다. 재밌는 것이 또하나 있다. 소원 바위를 자세히 보다보면 오른쪽 끝이 부처님이 미소짓는 형상이다. 심즉통이라 했던가? 마음을 가다듬고 자세히 봐야 보인다.

소원바위를 돌면 지장보살을 모신 지장전이 나온다. 사방이 바위로 둘러 쌓여있다. 이 지장전을 나와 소원바위를 돌면 산신각이다. 지붕보다 더 높은 두 개 바위 사이에 꼭 끼인 듯 들어서 있다. 그 옆엔 도선국사가 수도했다고 하는 도선굴이 있다. 산꼭대기 바위와 바위 사이에 난 도선굴은 한 사람이 겨우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만큼 좁다. 하지만 안은 엄숙하고도 고요하다. 켜 놓은 촛불이 또 하나의 도량임을 암시해 준다. 도선굴을 어렵게 빠져나오면 또 하나의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섬진강, 구례읍, 넓은 곡성평야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약사전과 소원바위서 내려다 본 풍광과는 또 다른 운치가 있다. 그래서인지 그 앞에는 풍광의 곳곳을 설명하는 사진이정표가 가로로 길게 서 있다.

이제 전국은 만추로 접어들고 있다. 사계절 중 산사가 가장 아름다운 때도 온 산이 울긋불긋 물드는 가을이다. 그러고 보니 구례 사람들도 사성암 전망 중 가을을 최고로 친다고 한다. 맑은 날이 많고 하늘이 높고 푸르러 사찰에서 보는 시야가 확 터지기 때문이다.

절을 내려가기전 다시 사성암 마당에 서서 거침없이 펼쳐진 산 아래 세상을 내려다본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뭉클한 기운이 올라온다. 지금까지 제대로 살아왔는가, 좀 더 '큰 마음' 으로 살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네 고승이 수도했다는 사성암은 분명 호연지기를 길러주기에 충분한 매력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구례 사성암=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약사전 뒤 바위에서 내려다본 풍광이 가히 일품이다.


KBS드라마 추노 중 한장면. 약사전을 내려오는 주인공들.

주변보기

주변 관광지

섬진강변을 따라 주변풍광이 아름다운 19번 국도를 달려보자. 없는 건 없고 있을 건 다 있다는 화개장터와 소설 '토지' 의 무대인 평사리 최참판댁까지 이어진다.

5일장이던 화개장은 7년 전부터 상설장이 됐다. 지리산에서 캔 온갖 나물과 하동 녹차제품 등이 선을 보이고 장터 인근 늘어선 식당가에선 지역 별미인 민물참게 매운탕과 은어, 재첩을 맛 볼 수 있다.

구례 사성암 가는 길

서울 남부고속버스터미널에서 2시간 간격으로 있는 구례행 버스를 타면 3시간40분 걸린다. 첫차 7시30분. 기차는 서울역에서 구례구역까지 새마을호(하루 2회)와 무궁화호(하루 12회)가 운행한다. 승용차로는 천안~논산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빠르다. 구례터미널에서 사성암행 군내버스를 타면 된다. 이때 사성암에 오르려면 다시 셔틀버스를 타면 된다. 왕복요금은 대인 왕복 3400원이다.

맛집

구례는 웰빙 맛여행의 천국이다. 전라도 하고도 구례니 밑반찬만으로도 80점 이상 먹고 들어간다. 불자라면 화엄사 입구의 백련산방(061-782-0405)을 권한다. 연잎밥 백반(오른쪽 사진 · 1만5천원)을 시키면 반찬이 50여가지가 나온다. 모두 이 집 사장이 산에서 캐온 나물과 약초들이다. 저렴한 가격에 향긋한 자연산 송이전골 정식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강남가든(061-782-7644)도 정갈한 밑반찬이 특히 인상적이다. 참게와 보리새우, 지리산 바람에 말린 시래기가 어우러진 참게매운탕은 큰 것(5만원)을 시키면 4~5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묵을 곳

사성암쪽에는 숙박업소가 거의 없다. 구례에서는 10여분 거리의 화엄사 인근에 위치한 지리산 한화리조트(061-782-2171)가 대표적이다. 1984년에 지어져서 시설은 조금 낡았다. 하지만 고즈넉하게 아침 구름 걸어놓고있는 지리산과 화엄사의 새소리, 바람소리, 계곡소리를 들으며 아이들 손잡고 아침 산책 하기에 딱 제격인 곳이다. 송원리조트(061-783-8200)는 산수유마을 바로 곁이면서도 지리산 온천지구에 있어 몸과 눈이 모두 호강할 수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불기2557(2013)년 수능100일기도 접수
(고입,대입,교사임용고시,사법.행정고시,취업성취)

입 재 2013년 7월 31일 선본사 상단(갓바위 부처님전)
회 향 2013년 11월 7일 선본사 상단(갓바위 부처님전)

문의 및 접수처 :
선본사 종무소(극락전) 053)851-1868
중 단 종무소(대웅전) 053)853-9877
상단접수처(갓바위 부처님전) 053)851-1869

동참비 : 10만원
대구은행 179-04-060280
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 선본사

불교문화콘텐츠산업을 통한
인문실용 융합형 인재 육성!

현대불교신문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동명대학교 불교문화학과